

韓國 精油産業과 메이저

- 걸프 18년을 통해 본 불평등 문제를 中心으로 -

趙 甲 濟

(朝鮮日報社 月刊朝鮮部記者)

사실 검증보다 주장이 앞섰던 걸프 연구

한국의 국회, 언론, 학자들로부터 걸프처럼 많은 편지를 얻어 맞은 기업은 달리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얻어 맞고도 끄덕없이 버티고 간 기업 또한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편지력이 형편없이 약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왜 그랬을까? 걸프에 대한 비판은 거의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었다. 물증 없는 심증만의 비난이었고, 그만큼 설득력과 영향력이 약했다.

걸프에 대한 비판은 겨냥이 잘못된 미스 블로우였다. 걸프가 韓國에 불평등 관계를 강요했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책임이지 걸프의 잘못이 아니다. 영리가 최종목적인 기업체에 대해 박애·평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유아기적 발상이다.

적어도 걸프는 대포와 군함을 앞세우고 韓國에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韓國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도 아니었다. 韓國과의 합법적 계약을 통해 그들은 일해 왔을 뿐이다. 우리는 그런 사태를 용인한 한국 정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그 불평등의 책임을 물어야 옳았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그동안 발표된 기사, 논문, 논설 등을 훑어 보았지만, 너무나 설득력이 약한 데나 자신 놀랐다. 내가 걸프 회장이라 해도 그런 비난은 웃어 넘겼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불평등의 핵심 증거인 걸프의 淸油公 원유 판매 계약 내용도

알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불평등의 논리를 전개해 갔다는 것 자체가 모래 위에 누각을 쌓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걸프에 대한 우리의 無力感을 그러한 일종의 자위 행동으로 해소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불평등 현상을 연구·분석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제는 역사가 되어버린 걸프에 대한 사례 연구는 이와 같은 냉혹한 자가 비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韓國의 언론이나 학계 풍토에서 가장 나쁜 점은 사실 검증이란 인식 작업을 소홀히 하고 가치 판단부터 먼저 내린다는 것이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주장은 독단이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법이다.

南韓의 도서화가 기름 의존성 높여

국제 석유 자본의 韓國 진출은 두 가지 사건에 의하여 운명지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해방과 5.16이다.

해방, 그리고 분단은 남한을 섬으로 만들었다. 3면이 바다인 南韓은 38선으로 하여 북쪽의 물과도 단절되어버린 것이다. 南韓의 도서화는 북방 대륙 세력과 우리를 격리시키는 대신 美國 등 남쪽 해양 세력과 유착시켰다. 對外 指向性 경제 발전, 원료의 수입 가공에 의한 수출 전략 등은 지정학적

변동이 몰고온「해양화」과정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이런「해양화」는 막대한 기름을 필요로 할 것이었다.

분단은 南韓의 에너지 사정을 왜곡시켜 버렸다. 38선에 의해 北韓에 있던 발전 시설-시설 용량에서 전국의 약88% - 이 잘려나갔다. 수력 발전의 적소도 앗아 갔다. 이제 南韓은 화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石油의존의 길 이 될 터였다.

분단은 또 석탄 매장량의 약 80%를 北韓 것으로 떼내 버렸다. 南韓에 남은 채굴 가능 석탄은 약 6억톤. 이나마 단층은 깊고 가파르며 소규모였다.

분단은 2대 민족 에너지源인 수력과 석탄을 거의 거세해버림으로써 해 외형 에너지원인 기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었다.

물거품된 민족자본의 정유회사 계획안

5.16으로 집권한 군사 정권은 싱거윈 허쉬만에 의하여 주창된 바 있었던「불균형 성장 전략」을 경제 개발의 방법론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외국자본 도입에 의한 급속한 공업화를 뜻했다. 민족 자본의 축적을 기다려 공업화를 단행하는 것이 순서 이기는 했지만, 이 때의 엘리트 집단은 근대화를 위한「시간 단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균형·조화보다도 불균형 중의 고속 발전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主動力源으로서 기름을 선택한 결정이기도 했다. 고속 성장은 열효율이 높고 값싸며, 공급과 운반이 쉬운 연료를 필요로 했다.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킨 것은 기름 뿐이었다.

군사 정권은 민족주의적 색채를 반영, 처음에는 민족 자본으로 움직이는 국영 정유 공장을 계획했다. 자유당 시대 한국에 대한 기름 공급권을 장악한 미군은 이것을 정치적, 경제적 압력용으로 이용했다. 특히 1954년 10~11월 두 달 동안, 환율 인상을 거부하는 李承晩 정권에게 기름 공급을 끊음으로써 공장 가동 중단·교통마비 등 대혼란을 야기, 끝내 李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도 한 그들이었다. 미국 정부는 자체 정유 공장을 세우려는 자유당·민주당 정권의 계획에도 여러번 거부권을 행사해 왔었다. 당시 최고회의 중화화학 공업 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던 유 인호 교수(당시 동국대)가 마련한 계획안 요지는 이러했다.

- 경영 형태 : 국영
- 규모 : 日産 3만5천 배럴 처리
- 건설자금 : 정부 보유 외화 1천6백만달러 및 한화 35억환
- 원유 도입(국가) : 이란 또는 사우디 아라비아
- 원유 수입(회사) : 독립계 석유 회사
- 원유 수송 : 그리스 유조선 (3만톤급)
- 국내 판매 : KOSCO조직 이용

이 계획은 최고 회의의 승인을 받아 1962년도투 용자 예산에도 반영되었다. 정유 공장 건설을 3년 계획으로 하고 62년 첫해에 46억환을 투자하기로 했다. 유 인호 씨는 62년 1월 정유공장 민영화 주장이 경제계에서 일자 이런 반론을 썼다.

『...이렇게 중요한 정유 공업이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든가 또는 완전히 사기업의 자유재량 아래에 있다면 정부 정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유 가격이 여러 가지로 다른데 이것도 정유 공장을 국영으로 할 때만 비로소 경제 효과가 높은 원유 산지를 선택할 수 있다...』 (朝鮮日報 1962년 1월 29일자).

이 글은 민족적 정유 회사를 기획한 최고회의 측의 생각을 엿보게 하는 자료라 하겠다.

그러나 62년에 몰아닥친 경제 위기는 민족 자본에 의한 정유 공장 건설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흉작, 통화 개혁 실패, 정치 혼란, 민정 이양에 대한 미국과의 견해 차이, 그로 인한 원조 자금의 도입 차질, 사상 최대의 양곡 수입, 기간 산업 건설에 따른 외화 지출 부담...이런 惡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蔚山에서 민족 자본으로 건설되던 정유 공장 공사는 중단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외화 부족으로 건설 회사(미국 플루어社)에 중도금을 제때 주지 못할 지경이 됐다.

여기서 우리 정부는 외국 석유 회사의 돈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걸프가 韓國에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이었다. 국제 석유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무리였고, 우리의 협상 조건(Bargain Power)이 가장 나쁠 때, 걸프를 만나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걸프도 원유 생산 과잉으로 새소비 시장을 찾아야 할 입장에 있었으나, 「전란의 나라」로 알려진 韓國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역시도

박이었다. 도박에는 위험성이 높을수록 성공했을 때의 몫도 많아지는 법-걸프는 그런 몫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걸프의 功過

걸프의 철수 뒤에 油公이 펴낸 『油公 二十年史』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걸프의 功過를 채점하고 있다.

『우선 걸프사가 남긴 업적을 살펴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진출하여 양호한 투자 수익을 실현시켜 한국에 대한 투자 안정도를 입증해 줌으로써 對韓 投資를 망설이던 외국 자본의 韓國 러시를 이루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경제 개발 초기의 외자유치 환경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해주었다. 둘째, 걸프사의 진출로 건설자금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蔚山 정유 공장이 완공을 봄으로써 우리나라 정유 산업이 빛을 보게 되었고, 그 후 걸프사의 차관 및 추가 투자 등에 힘입어 시설 확장, 윤활유 및 석유 화학 사업에의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룩하게 되었다. 셋째, 걸프사는 상당량의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으며, 우리 기술자들의 해외 연수 교육을 통하여 정유 및 석유 화학과 관련된 선진 기술 및 장치 산업의 현대적 운영 방법을 도입, 정착시켰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업적과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도 유발시켰다.

첫째, 걸프사는 그들의 경영 전략과 이익 추구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으며, 세계적인 경영 전략에 있어서 油公을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 단위로 파악·운영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체로서 油公을 운영한다는 정부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일치할 수가 없었다.

둘째, 걸프의 이런 투자 수익 중심의 油公 운영은 장기적 비전에 의한 계속 기업(Going Concern)으로서 사업 확대 및 성장 기반 구축보다는 단기적 운영 실적에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석유 화학이나 윤활유 사업 진출에도 불구하고, 油公의 사업 영역은 본질적으로 정유 산업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말았다.

셋째, 단기적 수익 중심의 운영은 기업 경영의

주체가 되는 인력 및 조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조직의 효율적·능동적 운영을 위해 채택된 美國式 부서장제의 도입은 조직을 기능별로 다원화하여 부문별 책임 경영과 인력의 전문화를 가져 왔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社의 인 관점에서의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경영 활동을 둔화를 가져 오는 한편, 조직의 정체, 인력 개발에 있어서 포괄적인 자질 향상의 부족 등 문제점을 드러냈던 것이다.』

불평등 계약의 핵심은 원유도입

단가계산 기준

63년 6월 25일에 한국 정부와 걸프가 서명한 차관 기본 협정의 골자는 이러했다.

- 주식: 걸프가 4 백 80만 8 천 달러를 투자, 油公 주식의 25% 인수.
- 차관: 2천 11만달러(정유 공장 건설용) 제공, 연리 4.5%
- 원유 공급: 15년간 또는 2억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때까지 걸프가 독점적으로 공급.
- 원유 수송: 걸프가 장기 운송 계약에 따라 독점
- 이사회 구성: 韓國측 이사 4명(감사 1명 별도)에 대해 걸프측은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며, 예산안은 걸프측 이사와 韓國측 이사의 완전 합의 아래서만 통과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유 도입 가격의 계산법 문제였다. 이것이 이른바 불평등 계약의 핵심이었다. 공화당 정권시대 국회에서 아무리 집요하게 공격해도 정부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이 부분이었다.

필자의 취재에 따르면, 원유 도입 가격 산정의 방법은 대강 이러했다.

산정 기준은 中東의 공시가격(Posted Price)으로 하되 쿠웨이트 중질유는 배럴당 16센트, 이란 중질유는 20센트, 이란 경질유는 22센트씩, 즉 API 1° 증가할 때마다 2센트씩 할인액을 높여, 공시 가격에서 깎아 준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당시의 시장 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싼 점을 지적, 할인 기준을 시장 가격으로 하자고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의 시장 가격은 생산 과잉

으로 공시 가격보다 10~30%쯤 싼 편이었다. 특히 1960년 무렵부터 소련이 원유를 덤핑하며 서구 시장에 내 놓기 시작, 시장 가격은 더욱 내려가고 있을 때였다.

원유도입단가 불평등했나?

그러면 이 원유 도입 가격 계산법 때문에 한국이 과연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이나, 평등이나를 판정하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우리 나라와 어느 나라를 비교하느냐가 문제다. 또 계약 물량의 크기, 계약 기간의 길이 등 여러 가지 다른 가격 조건을 동등한 잣대로 치환할 수 있는나도 문제다. 여기서는 대강의 윤곽을 잡기 위해 日本과 비교한다. 日本은 페르시아만에서의 거리가 한국과 비슷하고(운임 비슷) 中東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점 등 한국과 닮은 사정(情)에 있다. 가장 정확한 비교법은 日本 회사가 걸프를 통해 수입한 쿠웨이트 중질유 가격과 油公이 걸프를 통해 수입한 쿠웨이트 중질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年度別 전체 원유 도입 단가를 비교, 표를 만들었다.

원유 도입 가격 비교표

(단위 : 배럴당 달러)

	韓 国		日 本	비 교 표 (한국-일본)	
	FOB	운임 C&F	(CIF 가격)		
1964	1.615	0.528	2.143	2.02	+0.123
'65	1.62	0.499	2.119	1.97	+0.149
'66	1.606	0.493	2.099	1.89	+0.209
'67	1.563	0.491	2.054	1.94	+0.114
'68	1.442	0.449	1.941	1.88	+0.061
'69	1.390	0.358	1.747	1.80	-0.053
1970	1.386	0.326	1.720	1.83	-0.110
'71	1.725	0.361	2.092	2.30	-0.208
'72	1.905	0.483	2.388	2.57	-0.198
'73	2.499	0.501	3.000	4.85	-1.85

* 한국 자료는 상공부, 일본자료는 일본 석유(주)에서 펴낸 "석유 편람"('77년판)

이 표를 읽을 때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운임은 日本이 한국보다 운항 거리가 길므로(중동에서) 약간 비싸야 한다. 둘째, 韓

国 가격엔 보험료가 빠져 있는데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적다. 셋째, 1964~68년 사이의 韓國 도입 원유만이 순수한 걸프分이다. 1969년부터는 칼텍스, 1971년부터는 유니온이 한국으로 기름을 도입하게 되었다. 걸프分(65~68년)의 도입 가격은 日本의 원유도입 평균가격보다 싸야 맞다. 왜냐하면 中東 원유는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싼고 日本의 전체 원유 도입량 가운데 비중은 당시 70~80%로서 걸프分의 100%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적어도 1964~1968년 사이엔 韓國의 원유 도입 단가가 일본보다 비쌀 수가 없다. 그러나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걸프 독점 기간중 韓國의 원유 수입 단가는 日本보다 배럴당 6~20센트씩 줄곧 비쌌다. 그 이유는 韓國의 수입 단가가 日本에 비교하여 「불평등하게」 높았거나, 원유 수송비를 「불평등하게」 높게 매겼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이다. 日本 이외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韓國의 도입 단가는 비싸게 나타나고 있다. 메이저의 독과점 체제에 대한 권위있는 연구 서적으로 꼽히는 「석유의 통제」(The Control of Oil: 존 M. 블레어, 랜덤 하우스, 1977)에 따르면, 1965년 아르헨티나의 아라비아 경질유 수입 가격(FOB)은 배럴당 1.6달러로 같은 해의 韓國 수입 가격(쿠웨이트 및 이란산) 보다 1센트 싼고, 67년엔 배럴당 1.33달러로 같은 해의 韓國보다 23센트나 싼다. 1968년말 유럽은 아라비아 및 이란 경질유를 배럴당 1.3달러, 쿠웨이트 중질유를 배럴당 1.2달러에 수입했는데 같은 해 韓國의 수입 가격은 배럴당 1.44달러로 배럴당 24~14센트나 비싸게 먹힌 것이었다.

위의 비교에서 유의할 것은 1960년대에는 항상 쿠웨이트 중질유보다는 이란 경질유가, 이란 경질유보다는 아라비아 경질유가 비싸게 거래됐다는 점이다. 64~68년 사이 韓國은 쿠웨이트 중질유와 이란 경질유를 거의 수입했으므로 위에 예를 든 다른 나라의 단가보다 싸야 마땅한데 오히려 비싸게 나타나고 있다.

역사는 발전한다는 원칙

걸프가 처 韓 원유 판매 단가를 「불평등하게」 높게 매겼다는 反証은 1969년부터는 韓國의 단가가

日本보다도 싸졌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反轉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1969년부터 칼텍스가 경쟁 상대로 등장하면서 걸프의 가격 체계가 바뀌었다. 71년부터 활인액을 쿠웨이트 중질유의 경우, 배럴당 16센트에서 28센트로 대폭 늘렸고, 칼텍스의 湖南精油에 대한 가격보다 불리하게 매기지 않는다는 「경쟁 가격 체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둘째 日本이 석유 파동을 전후하여 원유 시장에서 비싸게 기름을 사재기 시작하였다.

사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日本의 수입단가가 韓國보다 비싼 것이 정상이다. 이 당연한 정상화를 이룩하는 데 湖南精油의 등장에 의한 경쟁 체제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음미해 볼 만한 일이다. 정부는 油公 시설을 확장하여 단일 정유 공장 체제를 계속 밀고 나가려는 일부의 움직임을 꺾고 湖南精油를 건설, 걸프를 견제하기로 했었는데 원유 도입면에서 볼때 이 정책은 성공작이었던 것 같다.

역사를 짧게 보면 후퇴도 있지만, 길게 보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20년의 石油史에서 보면 1970년의 걸프에 의한 油公 경영권 접수 같은 사건은 일보 후퇴로 기록될 것이고 호남정유·경인에너지 창설, 걸프의 철수와 (株) 鮮京의 油公 인수 등은 2보 전진으로 해석되어질 듯하다.

최근,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느 연구기관에서 추정한 걸프의 결산표가 있다. 걸프가 油公에 두 차례 모두 2천 9백69만 7천 달러를 자본(주식) 투자하여 1964~1980년 사이 과실 송금한 소득액은 1억 1천 9백55만 9천 달러라는 것이 이미 공개된 대로다. 이것은 정유 공장을 돌려서 낸 수익일 뿐이다.

油公에 원유를 팔아 남긴 수익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 기관은 걸프 내부 및 외부 자료를 수집, 油公에 대해 걸프가 17년 동안 7억 8천 4백 75만 배럴의 원유를 팔아 남긴 순수익은 약 2억 3천 7백만 달러라고 추정했다. 이 판매 원유의 수송에서도 걸프는 약 4천 6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걸프는 油公에 2천 9백 69만 7천 달러를 자본 투자하여 4억 2백 67만 5천 달러라는 약 14배의 순수익을 남겼다는 계산이 나

온다.

이 순수익의 액수를 놓고 볼 때, 걸프는 어마어마한 폐돈을 한국에서 벌어들였고 그만큼 韓國 소비자들이 많은 부담을 졌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이 순수익이 부당한 것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韓國을 착취한 대가다라고 단죄할 수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것이다.

걸프가 떠난 지금 우리는 걸프의 꿈무늬를 향해 속떡을 먹일 것이 아니라 걸프가 기록한 이 엄청난 돈벌이의 의미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그때 국제 석유 자본을 영입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가?

• 걸프가 1970년에 油公의 경영권까지 장악한 것은 과연 불가피했던가?

• 걸프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정치적인 거래-공화당에 대한 정치헌금사건, 유조선을 돌려싼 이권 거래, 흥국 상사 件, 박·홍식 씨 토지 매입 件 등-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가? 그것은 결과적으로 걸프를 성역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던가? 일부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소비자의 이익이 희생된 게 아닌가?

• 걸프의 힘을 그토록 키워 준 것은 걸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우리 쪽이 아니었던가?

• 걸프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통제는 충분했던가?

• 우리는 걸프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 이런 의문과自省으로서 걸프의 사례를 진지하게 더 공부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걸프는 이제 역사가 되었고, 역사는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겐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

